

무역회사 니시무라 케미텍, 고부가가치를 향한 제조업 확장

니시무라 케미텍은 제조 능력을 갖춘 무역 회사로서 사장은 변창을 위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열기를 열망한다.



“독립적으로 경청하고 고객의 니즈를 창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있다”

니시무라 케미텍 대표이사/
사장, 니시무라 오사무

거의 10년 전인 2014년, 일본에서 설립된 무역 회사 니시무라 케미텍은 제조업으로 확장하기로 하였다.

회사의 사장 니시무라 오사무

는 간단한 이유를 언급하였다. “무역 회사로서만 운영함으로써 생존할 수 없다.”



화학적 회색 및 전달 시스템

영감을 주는 사업 성장의 발자취를 남겼다

코로나 팬데믹이 반도체 시장에서 물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니시무라는 이미 설립된 법인이었고 한국에서 제조된 가스 스크러버로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다. 외제 장비를

수용하지 않기로 알려지지 않은 국내 시장의 희귀성, 그 노하우는 무엇일까?



원액 화학물질용 드럼 캐비닛

신제품을 판매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니시무라의 능력은 한국의 제조업자들 사이에서 괄목할 만한 평판을 얻을 뿐만 아니라 “회사 차별화” 이다.

POU(Point-of-Use) 시스템에 대한 특허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반도체 공정에 많은 응용이 있는 첨



스크러버 및 냉각 장치

단 화학 혼합 시스템을 갖춘 기업의 미래는 전도 유망하다.

미래를 전망하는 니시무라는 해외 시장에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 확보를 열망한다. “기본적으로 일본 제품의 해외 진출을 기여할 수 있도록 당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있다.”

중국 본토 진출을 우선순위에 두었다.

무엇보다도 그는 지속적인 부가가치는 회사에 필수적이며 성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.